

# 古代中國語 比較文의 文型分類 試論

任 炳 權\*

##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B) 優劣比較    |
| 2. 比較文의 범위       | (C) 無雙比較    |
| 3. 比較文 分類의 기준·방법 | 5. 比較文型 總合表 |
| 4. 比較文의 文型 分類    |             |
| (A) 同等比較         | <참고문헌>      |

## 1. 머리말

比較文은 어떤 사물의 性狀의 有無 및 程度를 다른 사물과 서로 연관지어 언급하는 文장인데, 比較가 人間의 重要한 사유활동 중 하나인 만큼 重要한 언어표현의 하나이다. 서로 다른 여러 언어나 방언, 또는 서로 다른 시대의 언어들이 어떤 모습의 比較文을 가지는가는 언어의 유형比較와 발전사 연구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이 글은 古代中國語 가운데 先秦·兩漢의 언어자료에서 보이는 比較文에 관한 기존의 主要한 研究들을 總合 整理하여, 比較文의 文型

\* 成均館大 中語中文學科 講師

을 분류하고 그 과정에서 고대중국어 비교문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비교문 문형분류는 중국어의 각 시대별 斷代 자료의 비교문들을 조사·분석하는데 사용될 기본적인 하나의 분류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斷代 언어자료의 비교문 연구에 잠정적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비교문의 범위

먼저 고대중국어 비교문에 대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잠정적 정의의 틀을 시도한다.

비교문은 어떤 사물을 그것과 공통성을 지닌 다른 사물과 비교하여 서로 연관지을 수 있는 어떤 性狀의 유무·대소와 정도의 고저를 묘사·판단하는 문장이다.

이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비교문 판별의 방침을 세울 수 있다.

1. 비교문은 둘 이상의 비교항목을 표시하는 명사성어구가 사용되거나 추정가능하여야 한다. 두 비교항목은 의미·통사범주상 동질적인 것(체언-체언, 용언-용언)이 되, 어떤 性狀의 소유자·출처와 그 性狀을 표시하는 어구가 서로 비교되는 것도 가능하며, 두 항목 중 하나는 반드시 그 문장의 주어이다(이하 주어물 피비교자, 그 상대 항목을 비교대상이라 부름).
2. 비교문의 술어부분에는 비교되는 性狀의 내용(이하 비교평면 Diminsion이라 부름) 또는 性狀의 유무·대소와 정도의 고저에 대한 비교·측정의 결과(이하 비교결과라 부름)를 표시하는 어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비교문 분류의 기준·방법

이 글은 비교문의 문형을 분류하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차례로 고려하여 삼단계의 분류를 한다.

1. 비교문에 언급·함의된 명사 항목들이 의미상으로 가지게 되는 우열관계와 비교항목의 지칭 범위.
2. 비교항목과 술어의 위치관계 및 문법구조.
3. 비교관계를 표시하는 어휘의 형태와 특징

첫째, 비교항목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와 관련하여, 이전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비교문의 분류 단위와 명칭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平比, 差比, 極比」(馬建忠, 太田辰夫, 何樂士)<sup>1)</sup>

「Equal동등, Superior우등, Inferior열등, Superlative최상급, Anti-superlative최하급」(趙元任)<sup>2)</sup>

「동등, 우등, 열등; 최상급」(리-툼슨)

「相似, 比較/ 比較: 異同, 對比, 無對比」(牛島德次)

「相等式, 不等式」(詹伯慧)

이 글에서는 비교의 형식을 同等, 優劣, 無雙의 비교들로 나누기로 하는데, 이 형식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해석 모형을 가진다.

1) 馬建忠과 太田辰夫의 분류원칙은 이 글 및 다른 연구의 것과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글은 비교관계를 표시하는 형용사·동사류의 형태상의 특징이 아닌 비교항목 사이의 의미관계 즉 전체문의에 의해 일차적 분류를 하는데 반하여, 이들 두 사람은 '平比, 差比, 極比'를 형용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이 '不如'류를 平比로 분류한 것은 이들의 위와 같은 견해를 반영한다.

太田辰夫는 비교항목이 문장 안에 출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다시 상대적·절대적 差比와 極比를 각각 구분하였으며, 楊伯峻·何樂士(1992)는 '平比' 대신 '等比'를 쓰고 있다.

2) 영문용어의 번역은 필자가 붙인 것임.

同等: 「-만큼 …하다」  
 「-과 (서로) 같다/다르다/비슷하다」  
 優劣: 「-보다 (더) …하다」  
 無雙: 「가장 …하다」

동등비교는 비교항목 사이의 異同·類似 관계를 언급하는 비교형식이고, 우열비교는 비교항목 사이에 있는 정도상의 고저·우열 관계를 언급하는 비교형식이며, 無雙비교는 한 비교항목이 정도상으로 가장 높거나 낮은 위치에 있음을 언급하는 비교형식이다. 동등·우열의 두 비교형식은 비교항목들이 모두 제한된 범위의 개체·사물로서 지칭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상정·취급되는데 반해, 無雙비교는 어떤 性狀을 지닌 모든 개체·사물의 집합 속에서 어느 하나를 그 밖의 모두와 비교한다는 점에서 비교항목의 지칭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우열비교와 無雙비교는 공통적으로 비교항목 사이의 고저·우열이라는 위상의 차이를 말하는데 반해, 동등비교는 비교항목들이 동등한 위상을 지니는 점에서 구분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용적인 분류인 이 삼분법은<sup>3)</sup> 우열이라는 위상관계와 지칭범위의 크기관계라는 두 기준을 겹쳐 적용한 것이다. 동등·우열·無雙비교에 대해서는 「원급·비교급·최상급」등의 다른 명칭이 가능하지만, 「최상」이 「최고」와 「최저」를 함께 지칭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등·우열·無雙」의 명칭은 각각 비교의 결과를 어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둘째, 비교항목과 그 관련 술어만의 위치를 고려하면 고대중국어 비교문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문형을 설정할 수 있다.

문형1 <x-V1-V2-y>                      전치사구문

3) 優劣·無雙의 두 종류를 다시 우등·열등으로 이분하면 조원임의 오분법이 된다.

與人善言,暖於布帛.

君子之交淡若水.

문형2 <x-V2-y-V1> 전치사구문

將劍與挺劍異.

문형3 <x-V1-y> 단순술어구문

帶甲數十萬,粟如丘山.

夫被堅執銳,義不如公;坐而運策,公不如義.

문형4 <x-V1> 단순술어구문

書…‘孰易者?’…‘鬼魅最易.’

<범례>

- 1)x,y: 비교되는 두 항목의 명사구. x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로서 y와의 비교에 의해 묘사·판단되는 피비교자 또는 그性状, y는 비교대상.
- 2)V1: 비교평면(Dimension)인 性状과 비교결과를 표시하는 형용사·동사.
- 3)V2: y의 앞에 와서 전치사구를 이뤄 비교대상을 도입하는 전치사.

세째, 비교문에 쓰여서 비교관계를 표시하거나 보조하는 어휘들은 그 형태와 문법적 특징에 따라 크게 다음의 일곱 가지로 나뉘는데, 이들 요소에 따라 제 삼단계의 세부문형을 분류한다.

- 1)문형1,2의 V2로 쓰여 비교관계를 표시하는 전치사·동사를 다시 다음의 4 종류로 나뉘 표시함.

「於」류; 문형1의 V2로만 쓰이는 전치사, 「於,于,乎,焉」등.

「與」류; 문형2의 V2로만 쓰이는 전치사, 「與」.

「如」류; 문형1,2의 V2로, 문형3의 V1로 쓰이는 전치사·동사, 「如,若,似」등.

「比」류; 문형2의 V2로, 문형1,3의 V1로 쓰이는 「비교하다, 비등하다」류의 동사·형용사, 「視,比較」등.

- 2)각 문형의 V1로 쓰이는 性状표시의 형용사·동사 가운데 「如」류와 「比」류는 구분 표시하고, 그 밖의 형용사·동사는 V1으로

표시함.

- 3)형용사·동사 앞에 쓰여 비교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부사 「益」, 「嚴」 등.
- 4)의문대체사 「孰」류와 그것이 「與,如」류와 결합하여 비교문을 구성한 형태를 「孰」, 「孰與」로 표시함.  
「孰與」류: 孰與,何與,奚與,孰如,何如,孰若,何若 등.
- 5)부정사 「不」, 「莫」류과 「如」등이 각각 결합하여 우열비교를 표시하는 「不如」류 그리고 無雙비교문을 만드는 「莫如」류.  
「不如」류: 不如,弗如,不若,未若,不及,不過 등.  
「莫如」류: 莫如,莫若,無如,毋如,無過 등.
- 6)비교문 구성의 요소인 x, y 및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x와/또는 y가 속하는 모집단」을 「z」로, 「비교의 기준을 문두에 놓아 전제 사항으로 삼은 것」을 「T」로 표시함.
- 7)현대중국어의 비교구문의 연원과 관련된 고려요소로서 「V1 앞의 有·無」, 「V1로 쓰인 一樣」, 「비교결과의 측정치를 표시하는 수량사,형용사」 등.

## 4. 비교문의 문형 분류

### (A) 동등비교

동등비교는 x의 性狀이 y와 동등하거나 동등하지 아니함을 표시하는 비교인데, 다시 V1의 의미에 따라 '異·同'등의 형용사를 사용한 異同관계 표현과 일반적 性狀묘사의 형용사를 사용한 類似관계 표현의 둘로 구분할 수 있다.

#### A1 <x-V1-V2-y>

이 문형의 V2에는 「於,如」의 두 종류가 사용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異同관계에, 후자는 類似관계에 쓰인다. 異同관계의 동등비교문은 'x는 y와 같다/다르다/비슷하다'로 해석되고, 類似관계의 동등비교문

은 'x는 y(와 견줄)만큼 V1하다'로 해석된다.

A11 <x-V1-「於」-y>

이 문형의 V1에는 「異, 同, 夷, 儕, 擬, 侔, 埒, 并」등의 형용사들이 쓰이는데, 이들이 표시하는 異同관계는 비교평면이 아닌 비교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형의 V1 형용사들은 「형용사+목적어」의 어순만에 의해 비교를 표시하는 경우가 드물고 전치사 「於, 于, 乎」등에 의해 비교대상을 도입하는데, 이것은 늘 「형용사+목적어」의 형식으로 類似관계를 표현하는 「如, 猶」등 그리고 우열비교를 표현하는 「甚, 重, 高, 賢」등의 형용사와는 대조적인 특징이다.

我則異於是.(論語 微子)

鷄其憚爲人用乎! 人異於是.(左傳 昭22)1434

微子,則不及此. 然君異於器,不可以二. 器二不匱,君二多難.(左傳 哀6)1743

其來也不寇,使民不嚴,異於他日.(左傳 襄25)1095

異乎我所聞.(論語 子張)

子西諫曰:「吳光新得國,而親其民,視民如子,……光又甚文,將自固於先王。」(左傳 昭30)1508

若惠顧前好,徵福於厲·宣·桓·武,不泯其社稷,使改事君,夷於九縣.(左傳 宣12)2.720 (九縣과 동등하게)

諺所謂老將知而耄及之者,其趙孟之謂乎! 爲晉正卿,以主諸侯,而儻於隸人,朝不謀夕.(左傳 昭1)4.1210

管仲……而仲尼謂之不知禮,以其奢泰侈擬於君故也.(史記 平津侯主父列傳)2963

趙名晉卿,實專晉權,率邑侔於諸侯.(史記 趙世家)6.1792

鳳凰于飛,和鳴鸞鷟. 有媯之後,將育于姜. 五世其昌,并于正卿.(左傳 莊22)221

A12 <x-「比」-「於」-y>

이 문형은 앞 A12와 동질적인데, V1인 「比」가 문형 2,3에도 함께 쓰일 수 있다.

吳,周之胄裔也,而棄在海濱,不與姬通;今而始大,比于諸華.(左傳 昭30)4.1058

A13 <x-V1-「如」,-y>

이 문형의 V1에 사용되는 형용사는 「淡, 甘, 猛, 狠, 貪, 勇, 捷, 廉, 信」등으로 개방류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비교평면을 표시한다. 「如」류로는 「如, 若, 似」등이 쓰이는데 이들은 비교결과를 표현하면서 주된 비교표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君子之交淡若水,小人之交甘若醴.(莊子 山木)  
猛如虎,狠如羊,貪如狼,彊不可使者,皆斬之.(史記7)  
勇若孟賁,捷若慶忌,廉若鮑叔,信若尾生.(漢書 東方朔傳)2841

A2 <x-V2-y-V1>

이 문형에서는 「與, 如」류의 V2가 異同류의 형용사 및 형용사를 대체한「然」과 각각 배합되어 異同관계와 類似관계를 표시한다.

A21 <x-「與」,-y-V1>

이 문형과 A22는 현대중국어의 동등비교 형식 <x-跟/同-y-一樣(V1)>과 비교된다. 예문 중 <孟子>의 '同類'는 다른 異同류와 달리 V1 뒤에 목적어 '類'가 왔는데 이는 비교평면으로 볼 수도 있다.

將劍與挺劍異. 劍以形貌命者也,其形不一,故異.(墨子 大取)  
聖人與我同類者.(孟子 告子上)  
西北有高樓,上興浮雲臺.(古詩十九首9)



A22 <x-「不」-「與」-y-V1>

이 문형은 「與」앞에 「不」를 둔 부정형식이 긍정의 경우와 相反(모순)관계를 이뤄, 우열비교를 형성하는 「不如」와 비교된다.

我諸戎飲食衣服不與華同.(左傳 襄14)3.1007

上爲封祠器示羣儒,羣儒或曰「不與古同」.(史記12)473.8,28/1397.6

A23 <x-「與」-y-何-V1>

이 문형은 'x와 y가 무엇이 다른가'를 물어 異同관계의 비교를 표시하는데 우열비교의 문형 B22와 비교된다.

此論莊子刺虎之類也. 臣主與王何異也.(史記70)2302.5

此與詩之風何異? (史記117)3073.4

A24 <x-「如」-y-「然」>

이 문형은 현대중국어의 <x-像-y-似的/一樣-V1>와 비교될 수 있는 형식인데,<sup>4)</sup> V2인 「如」는 비교결과를 V1인 「然」은 비교평면을 표현한다. 이 문형은 A33과 파생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莊子>의 예는 비교방면을 명시하는 동사구가 「然」 뒤에 다시 나온 모습이다.

人之視己,如見其肺肝然.(禮記 大學)

4) 근대중국어 자료에서는 현대중국어의 <x-像-y-似的/一樣-V1>과 더욱 유사한 다음의 예들이 보인다.

<x-如,比-y-(般-)V1>

紙如海蠶閨; 字比針黹大.(朝野新聲太平樂府卷6 周仲彬 蝶戀花)

暫得身居天上,還如花下一般;却歸世上爲人,便似江頭寂寞.(敦煌變文集 妙法蓮華經講經文)

<x-如-y-一般(樣)>

沙細人間莫比,恰如麵粉一般.(敦煌變文集 妙法蓮華經講經文)

暫得身居天上,還如花下一般;却歸世上爲人,便似江頭寂寞.(敦煌變文集 妙法蓮華經講經文)

其游如父子然(史記107)

善養生者,若牧羊然,視其後者而鞭之.(莊子 達生)

A3 <x-V1-y>

이 문형은 V1의 의미에 따라 類似관계와 異同관계의 두 종류 표현으로 나뉘는데, 類似관계를 표현하는 V1은 다시 「如」류와 그 밖의 類似류 형용사(또는 관계동사류)로 나뉘고, 異同관계를 표현하는 V1은 다시 「比」류와 그 밖의 異同류 형용사로 나뉜다.

A31 <x-V1-y>

이 문형의 V1로 사용되는 類似관계를 표현하는 형용사류는 「猶, 由, 猶如, 似若, 譬如, 譬若, 譬猶, 類, 像」등으로 「如」류와 동질적이며, 이 문형에서는 비교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고 따로 비교평면을 표시하는 말(<孟子>의 예; '쉽다', '어리석다')을 상정할 수 있다. 異同류 형용사는 「俚, 孖」등으로 전치사 「於」류를 쓰는 문형 A11의 V1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며 용례가 드물다.<sup>5)</sup>

以齊王由反手也.(孟子 公孫丑下)

以若所爲求若所欲, 蠶緣木而求魚也.(孟, 梁上0730)

一國之政, 猶一身之治.(史記5-8a)

民之有口也, 猶土之有山川也.(史記4-12a)

動發舉事, 猶如運之掌中.(史記126-5a)

於是, 公子立自責, 似若無所容者.(史記77-3b)

以秦之彊, 諸侯譬如郡縣之君臣.(史記6-3b)

其類似堯, 其項類卓陶, 其肩類子產.(史記47)

歲餘, 像孫叔敖.(史記126-2b)

5) 근대중국어의 자료에서 이 문형에 「異, 殊」를 사용한 다음 예가 보고된다.  
十月滿足, 生産欲臨, ……直得四支體折, 五臟疼痛, 不異刀傷, 何殊劍切. (敦煌變文集 廬山遠公話)

德厚俸天地,利澤施四海,靡不獲福焉。(史記 孝文本紀)2.436

故吳,諸侯也,以卽山鑄錢,富擬天子,其後卒以叛逆。(平準書1419) 그  
 財富가 천자와 대등해졌다.

A32 <x-「比」-y>

이 문형의 「比」류로는 「比, 視」등이 있으며, 문형 A12에서 「於」류를 제거한 것과 같은 형태이다.

昭儀位視丞相,爵比諸侯王。(漢書 外戚傳)

帝乃東巡岱宗,以純視御史大夫從。(後漢書 張純列傳)

A33 <x-「如」-y>

이 문형의 성격은 A31과 동질적이며, V1인 「如」류로는 '如, 若, 似'들이 쓰인다.

肌膚若冰雪,綽約若處子。(莊子 逍遙遊)

齊地方二千餘里,帶甲數十萬,粟如丘山。(史記69)2257.1

僕之思歸,如癢人不忘起,盲者不忘視也。(史記 韓王信列傳)

士赴矢石,如渴得飲。(史記 貨殖列傳)

其類似堯,其項類皋陶,其肩類子產。(史記47)

(B) 우열비교

우열비교는 비교의 방식들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서, x의 어떤 性狀이 y보다 낮거나 못함을 표시하여 우등비교와 열등비교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형식들이 모두 우등비교이며 「不如」류만이 열등비교를 표시한다.

B1 <x-V1-V2-y>

이 문형의 V2에는 「於」류인 '於, 于, 焉'의 전치사들만이 사용된다.

**B11 <x-V1-「於」-y>**

이 문형에서 비교평면을 표시하는 V1에 사용되는 형용사는 '少, 多, 大, 暴, 富, 彊, 弱, 賢, 衆, 數, 甚, 過, 長, 小, 先, 後, 速, 輕, 重, 甚愈, 難'등으로 개방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V2의 焉에 포함된 비교대상 y는 흔히 바로 앞에서 동사구등으로 언급된 상황이다(楊伯峻·何樂士 참조).

然而君之祿位貴盛, 私家之富過於三子, 而身不退者, 恐患之甚於三子, 竊爲君危之.(史記79)2422.3

韓起少於樂贗, 而樂贗·士魴上之, 使佐上軍.(左傳 襄6)967

慶封·奔吳. 吳句余子之朱方, 聚其族焉而居之, 富於其舊.(左傳 襄28)

魯之群室衆於齊之兵車.(左傳 哀11)1658

德之流行, 速於置郵而傳命.(孟子)

不揣其本而齊其末, 方寸之木可使高於岑樓.(孟子)

與人善言, 暖於布帛; 傷人之言, 深於矛戟.(荀子)

人固有一死, 或重於太山, 或輕於鴻毛.(漢書 司馬遷傳)9.2732

今嬖寵之喪, 不敢擇位, 而數於守適.(左傳 昭3)1233 數: 頻繁 <左傳會箋>: '言比適夫人之喪更爲煩密也'.

闔廬唯能用其民以敗我於柏舉. 今聞其嗣又甚焉.(左傳 昭13)1346

尤而效之, 罪又甚焉.(左傳 僖24)418

囚曰: '韻遇王子, 弱焉'.(左傳 襄26)3.1115

**B12 <x-도량-V1-於-y>**

이 문형은 V1인 형용사 앞에 측정치를 표시하는 수사를 부사어로 쓴 점이 특수하며, 문형 B33에서 '於'를 빼면 이 형식이 된다. 수사가 표시하는 측정치는 비교결과의 일부로 볼 수 있다.

諸侯之地,五倍於秦,料度諸侯之卒,十倍於秦.(史記69)  
 天下安寧,有萬倍於吳楚之時.(史記118)

**B13 <x-有-V1-於-y>**

이 문형은 다음의 B14와 함께 V1 앞에 '有·無'를 써서 현대중국어의 <x-有/沒有-y-V1>'를 쓴 비교문 형식과 대조된다(문형 B36 참조). 예문 중 《左傳》의 것에 쓰인 동사 '有·無'는 반드시 '있다·없다'의 어휘의미를 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故敵邑之職貢於吳,有豐於晉,無不及焉.(左傳 哀13)4.1678  
 上有好者,下必有甚焉者矣.(孟子 滕上)  
 天下安寧,有萬倍於吳楚之時.(史記118)

**B14 <無-「不如」,-焉>**

이 문형은 'x의 性狀 가운데는 y보다 못한 것이 없다'로 해석되어

故敵邑之職貢於吳,有豐於晉,無不及焉.(左傳 哀13)4.1678 左傳譯文:  
 「所以蔽邑進貢給吳國的,只有比晉國豐厚,而沒有不如的。」그러므로 우리 나라(魯)가 吳나라에 공물을 바치는 것이 晉나라에 대한 것보다 후한 바가 있으며 어느 것도 (그들에 대한 것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平王之溫惠共儉,有過成·莊,無不及焉.(左傳 昭27)4.1488 평왕의 溫惠共儉함은 성왕·장왕보다 더한 바가 있으며 어느 것도 그(成·莊王)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

**B2 <x-V2-y-V1>**

이 문형은 현대 중국어의 '不如·比' 비교구문과 같은 문형인데, 이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V2로 '不如'를 쓴 예가 보이며, 「孰與」류 또는 「孰·何」과 「與」가 어울려 V2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예들이 보인다.<sup>6)</sup>

**B21 <x-「不如」-y 之-V1>**

이 문형의 V2인 「不如」는 구조상으로 전체 문장의 술어를 담당하는데, 문형 B35의 <x-不如-y>와는 크게 달라 현대중국어의 <x-不如-y-V1>와 동질적인 문형으로 취급할 수 있다.

吾不如衰之文也,請使衰從.(左傳 傳23)1.410 左傳譯文: 我不如趙衰那樣的有文彩,請您讓趙衰跟從赴宴.<sup>7)</sup>

**B22 <x-「與」-y-「孰」-V1>**

이 문형은 '孰'가 V1 앞에서 질문을 표시하여 'x와 y 가운데 누가 더 V1한가?'를 질문하는 비교문이다.

立孤與死孰難?(史記 趙世家)

「師與商孰賢?」…「然則師愈與?」曰:「過猶不及。」(史記67)2203.1

書至,漢議擊與和親孰便.(史記100)2896.9

**B23 <x-「孰與」-y-V1>**

이 문형은 B22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며 '孰'이 '與' 앞에 붙은 점이 다른데, '孰與'를 쓴 문형들(b23-B26)은 일반적으로 'x가 y에 비해 어떠한가'를 묻는데, 흔히 '孰與' 앞의 x가 y보다 못한(덜 v1한) 경우에 상대의 동의를 구하면서 사용된다.

6) 후기의 자료에서 보이는 다음 예들은 <x-「比」-y-V1>의 문형에 해당하여 현대중국어의 '比'구문과 일치한다.

此吾鄉隣之死則已後矣.(柳宗元 捕蛇者說)

冰雪驚難至,春寒花較遲.(杜甫 人日詩)

蓋當時觀他驛爲壯(孫樵 書褒城驛壁)

7) 후기 자료의 보충 예;

則吾斯役之不幸,未若復吾賦不幸之甚也.(柳宗元 捕蛇者說)

我孰與蕭何曹參韓信賢?(史記 陸賈列傳)

應侯之用於秦也,孰與文信侯專?(史記71)2319.9

「兩帝立約伐趙,孰與伐桀宋之利?」 王曰:「伐桀宋利。」…「伐趙不如此  
桀宋之利。」(史記46)1898.10

「子觀我治秦也,孰與五殺大夫賢?」(史記68)2234.2

沛公曰:「孰與君少長?」 良曰:「長於臣。」(史記7)0312.1

賦田計功,王之獲利孰與秦多?(史記43)1817.9

### B24 <T-x-孰與-y>

이 문형과 B25의 문장들은 동사구·주술구로 표현되는 비교의 기준을 문두에 놓아 비교·판단의 전제로 삼고 있다. 이 전제사항인 T는 x가 가진 性狀 또는 x의 행위라는 점에서 비교평면과 관계되어 V1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治百官親萬民實府庫,子孰興起?(史記65)2167.4

將三軍,使士卒樂死,敵國不敢謀,子孰興起?」(史記65)2167.4

### B25 <T-孰與-y>

다음 예문의 어휘화되지 않은 x는 질문을 받고 있는 대화 상대방이다.

「君侯自料能孰與蒙恬? 功高,孰與蒙恬? 謀遠不失,孰與蒙恬? 無怨於天下,孰與蒙恬? 長子奮而信之,孰與蒙恬?」 斯曰:「此五者皆不及蒙恬。」(史記87)2549.10

### B26 <x-「孰與」-y>

이 문형의 「孰與」류에는 '何如, 何與'의 형태도 함께 보인다.

「赦趙孰與勿赦?」 驪忌子曰:「不如勿赦。」(史記46)1892.1

「蚤孰與晚孰?」 驪忌子曰:「不如勿孰。」(史記46)1893.9

「陛下精兵孰與楚?」上曰:「不能過。」(史記56)2056.10

予秦地何如毋與,孰吉?(史記76)2373.6

楚王之獵何與寡人?(史記117)3003.5

B3 <x-V1-y>

이 문형의 V1은 性狀묘사의 일반 형용사와 「不如」류로 나뉜다. 그리고 수사나 형용사로 우열비교의 결과인 측정치를 표시하여 비교관계를 표시하거나 보조하는 형식, 열등비교의 피비교자인 x 앞에 '與'등을 놓는 형식 등이 있다.

B31 <x-V1-y>

이 문형의 V1은 '甚, 倍, 多, 賢, 高, 愈, 弱, 過'등의 일반적 性狀묘사 형용사로서 문형 B1의 것과 동질적이다. 비교평면을 표시하는 이들 형용사는 목적어 지배와 관련된 어순관계에 의해 비교관계를 표현한다.

使韓簡視師. 復曰:「師少於我, 鬪士倍我」.(左傳 僖15)1.355

若能孝敬, 富倍季氏可也.(左傳 襄23)3.1079 富有(左傳 的程度)可以比季氏增加一倍

奸回不軌, 禍倍下民可也.(左傳 襄23)1080

弟子名飛衛, 學射于甘蠅, 而巧過其師.(列子 湯問)

人之愛子亦如是乎? 侍者曰:「甚是」.(史記40)1707.4

專趨人之急, 甚己之私.(史記 遊俠列傳)3184

退而禪顏, 名重太山.(史記 廉頗藺相如列傳)

所斬捕功已多大將軍.(史記 衛將軍列傳)9.2936

此國有賢不齊者五人, 數不齊所以治者.(史記 仲尼弟子列傳)2207 이 나라에는 不齊(인명)보다 현명한 사람이 다섯 있어...

以爲孟嘗君名高其主, 而擅齊國之權.(史記75)



**B32 <x-V1-y-도량>**

이 문형은 비교결과와 측정치를 '三歲, 遠'의 수량사와 형용사로 표시하고 있는데, 현대중국어의 비교수량보어 구문 중 '我大他三歲'의 종류와 비교될 수 있다.

顏回…少孔子三十歲.(史記67)

夫曾參以布衣猶難之,今陛下親以王者脩之,適曾參孝遠矣.(史記 101)  
2739.3

**B33 <x-도량-V1-y>**

이 문형은 비교결과와 측정치를 표시하는 수사를 부사어로 쓰고 다시 비교대상 y를 목적어로 가진 것이 주목된다.

秦富十倍天下.(史記8)

**B34 <x-「不如」,-y>**

이 문형은 고대 중국어에 보이는 유일한 정격의 열등비교 구문으로서 'x가 y보다 못하다'로 해석된다. 열등비교를 표시하는 「不如」류에는 '不如, 弗如, 不若, 未若, 不及, 不過'등이 있는데, '不'와 결합한 뒤 성분들의 성격들이 약간씩 다르다. '如, 若'은 동등비교문의 V1 또는 V2로 쓰이지만, '過'는 우열비교문의 V1 및 무쌍비교의 V1으로 쓰이며, '及'는 '不及'의 형태로만 비교문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此人之欲善,誰不如我?(左傳 僖9)329

以忠信言之,則不過大夫種·范蠡之於句踐也.(史記92)2625.3

今吾智不及三子,而二世之無道過於桀·紂·夫差.(史記87)2560.7

吾久不見賈生,自以爲過之,今不及也.(史記84)2503.1

故不如先聞秦趙,夫被堅執銳,義不如公;坐而運策,公不如義.(史記7)0

305.3 먼저 진과 조를 싸우게 하는 게 좋다.

**B35 <與其, 與-x-「不如」,-y>**

이 문형은 비교 뿐만 아니라 선택의 의미도 함께 갖는다.

與其以秦驪衛,不如以魏驪衛,衛之德魏必終無窮.(史記44)1850

**B36 <x-有-V1-y>**

이 문형은 B13의 문형과 동질적이다.

平王之濫惠共儉,有過成·莊,無不及焉.(左傳 昭27)4.1488 평왕의 濫惠共儉함은 성왕·장왕보다 더한 바가 있으며 어느 것도 그(成·莊王)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

**B4 <x-V1>**

이 문형은 형용사에 정도상의 진일보를 표시하는 부사 '益,滋,愈,加'등을 덧붙여 직접적으로 우등비교를 표시한다.

**B41 <x-「益」-V1>**

罪益厚.(墨子 非攻上)  
所亡益多.(左傳 僖25)

**(C) 無雙비교**

무쌍비교는 x나 y가 어떤 性狀에 관하여 그것이 속한 모집단의 다른 어떤 구성원보다도 낫거나 못함을 표시하는 비교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고대중국어의 무쌍비교에서는 열등비교가 보이지 않으며, 우등비교 및 동등비교의 형식 위에 무쌍비교 특유의 요

소들을 배합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무쌍비교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부정사 「莫」류와 반문의 의문사 「孰」류 및 정도부사 「最」류, 그리고 모집단 z를 표시하는 어구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사 「莫」류 뒤에 우등비교와 동등비교 형식을 배합시키는 무쌍비교문형은 'y보다 더 V1한 x는 없다'와 'y만큼 V1한 x는 없다'의 모형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부정사 「莫」류로는 '莫, 無, 毋, 未有'등이 쓰이는데 이들은 <부정-비교대상 x>과 같은(현대중국어의 '沒有一個') 역할을 한다. 「莫」류와 배합되는 우등비교 형식의 요소로는 '於, 于, 乎, 焉'과 '過, 如'가 있고 동등비교 형식의 요소로는 '如, 若'이 있다.

의문사 「孰」류 뒤에 우등비교와 동등비교 형식을 배합시키는 무쌍비교 문형은 '그 어떤 x가 y보다 더 V1하겠는가?'와 '그 어떤 x가 y(와 견줄)만 하겠는가?'의 모형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의문사 「孰」류로는 '孰, 何, 奚'등이 있는데 이들은 반문에 의해 무쌍비교 구성의 역할을 한다. 「孰」류와 배합되는 우등비교 형식의 요소로는 '於, 焉'이 있고 동등비교 형식의 요소로는 '如'가 있다.

의문사 「最」류는 직접 형용사 V1 앞에 쓰여서 'x가 가장 V1하다'의 모형으로 해석되는 무쌍비교문을 구성한다.

그리고 무쌍비교에서는 모집단 z의 존재가 중요한 의미를 지녀, 단순히 모집단의 어구를 우등비교 형식 앞에 배합시켜 무쌍비교문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z 중에서는 무엇이 V1한가?'로 해석되는 <모집단-우등비교>의 예가 보인다.

그런데 고대중국어의 무쌍비교문 가운데 반문과 부정의 방식을 배합시키는 것들은 그 구성상의 특징 때문에 모두 비교대상인 y에게 초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열비교문에서의 피비교자 x와 비교대상 y의 위치관계를 고려할 때, x의 입장에서 보면 열등비교를 한 결과가 된다.

C1 <x-V1-V2-y>

이 문형의 구성방식은 <부정-우등비교> <반문-우등비교>의 두 가지로 나뉜다.

C11 <z-「莫」-V1-「於」-y>

이 문형은 <모집단-부정-우등비교>의 방식으로 무쌍비교를 구성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이 문형에서는 z가 y를 포함한 모집단으로서 V1의 性狀을 가져 'z 가운데서는 y보다 더 V1한 x가 없다'로 해석된다. 性狀 즉 비교평면을 표시하는 V1에는 '知, 便, 大, 甚, 憎, 醜, 高, 盛, 彊, 先, 良, 長, 善, 過, 厚, 威, 近, 痛, 醜'등 性狀묘사의 일반형용사가 사용되며, 「莫」류로는 '莫, 無, 未有'등이 쓰이고, 「於」류로는 '於, 乎, 于'의 예가 있다.

吾聞之,蟲莫知於龍.(左傳 昭29)4.1500

禍莫大於不知足.(韓非子 解老)

天下莫大於秋毫之末,而太山爲小.(莊子 齊物論)

夫不憂百里之患而重千里之外,計無過於此者.(史記69)2244.6

人誰無過,過而能改,善莫大焉.(左傳 宣2)2.657

違此二者,奸莫大焉.(左傳 僖7)318

與人而不同,取惡莫甚焉.(左傳 襄14)1008

貳而執之,服而舍之,德莫厚焉,刑莫威焉.(左傳 僖15)365

學莫便乎近其人.(荀子 勸學)

C12 <z-孰-V1-於-y>

이 문형은 <모집단-반문-우등비교>의 방식으로 의문대체사 '孰'가 질문이 아닌 반문을 구성하여 'z 가운데 어느 하나(x)가 y보다 더 V1하겠는가?'로 해석된다.

天下有變,其爲秦患者孰大於韓乎?王不如收韓.(史記79)2410.6

夫既以愛而不欺矣,言孰善於此?(韓非子 難一)

能以國讓,仁孰大焉?(左傳 僖8)

奸王之位,禍孰大焉?(左傳 莊20)1.215

吾父再諫王命,王弗誅,惠孰大焉?(左傳 昭13)1347

國家之敗,由官邪也.官之失德,寵賂章也.郤·鼎在廟,章孰甚焉.(左傳 桓2)89

**C13 <孰-x-V1-焉>**

이 문형은 <반문-우등비교>의 방식으로 「孰」가 반문을 구성하여 '그 어떤 x가 y보다 더 V1하겠는가?'로 해석되며, 어휘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집단 z가 전제된다고 말할 수 있다.

若專賜臣,是臣與諸侯以自封也,其何罪大焉?(左傳 襄10)3.976

**C14 <無-x-V1-焉>**

이 문형은 <부정-우등비교>의 방식으로 'y보다 더 V1한 x는 없다'로 해석되며 역시 모집단 z가 전제된다.

奉君命以使,而欲背盟以干盟主,無不祥大焉.(左傳 昭25)4.1459

**C2 <V2-y-V1>**

이 문형에는 <모집단-부정-동등비교>의 방식이 보인다.

**C21 <z-「莫如」-y-V1>**

이 문형은 <모집단-부정-동등비교>의 방식으로 'y만큼 V1한 x는 없다'로 해석된다.

上察宗室諸賢,毋如賢賢.(史記 魏其列傳)

C3 <x-V1-y>

이 문형의 구성방식은 <반문-동등비교> <부정-동등비교> <부정-우등비교>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하부 문형 가운데서는 또 비교기준을 문두에 놓아 전제로 삼는 문형이 주목된다.

C31 <何-x-如-y>

이 문형은 <반문-동등비교>의 방식으로, '그 어떤 x가 y(와 견줄)만 하겠는가?'로 해석되며, 역시 모집단 z가 전제된다. 다음 예문을 보면 y인 '之, 是'의 지시내용이 바로 앞 구절에 제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

君既之以大禮,何樂如之?(左傳 文3)531 현대중국어 번역: 有什麼快樂能像這個?

巫臣曰: '是不祥人也.是...喪陳國,何不祥如是?'(左傳 成2)804

C32 <z-「莫如」-y>

이 문형의 「莫如」류에는 '如'와 '過'의 두 단어가 V1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如'와 '過'는 단독으로 쓰여 동등비교와 우열비교를 구성하며, 따라서 이 문형의 예문들은 <모집단-부정-동등비교>과 <모집단-부정-우등비교>의 두 방식으로 분류된다.

다음 예문들은 <모집단-부정-동등비교>의 방식으로, 'z 가운데서 y(와 견줄)만 한 x가 없다'로 해석된다.

相人多矣,無如季相.(史記 高祖本紀)2,344

用少莫如齊致死;齊致死莫如去備.(左傳 昭21)4,1428 使用少量的兵力沒有什麼比得上一同拚命(更合適)了; 一同拚命沒有什麼比得上撤去守備(更合適)了.

固將謀子,子早圖之! 圖之莫如盡滅之. 需,事之下也.(左傳 哀6)1633

다음 예문들은 <모집단-부정-우등비교>의 방식으로 'z 가운데서  
는 y보다 나은 x가 없다'로 해석된다.

吾所賢者無過堯舜。(戰國策 魏策)

夫挾彊秦之勢以內劫其主,罪無過此者。(史記69)2254.4

### C33 <T-「莫如」-y>

이 문형은 <비교기준-부정-동등비교>의 방식으로, 'T에 관해서는  
y(와 견줄)만 한 x가 없다'로 해석된다.

古人有言曰:「知臣莫若君。」(左傳 僖7)

擇子莫如父,擇臣莫如君。(左傳 昭11)1327

知臣莫若君,知子莫若父。(韓非子 十過)

### C4 <x-V1>

이 문형은 피비교자 y 없이 단독의 V1로 무쌍비교문을 이루는 것  
으로서 모두가 우등비교이다. 이 문형의 구성 방식은 두 가지가 있  
는데, 하나는 V1인 형용사 앞에 「最」류를 첨부하여 무쌍비교를 구성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z 중에서는 무엇이 V1한가?'로 해석되는  
<모집단-우등비교>의 방식이다.

### C41 <z-x-最-V1>

형용사 앞에 최고의 또는 매우 심한 정도를 표시하는 부사 「最」류  
8)를 붙이는 문형은 모집단 z와 비교대상 x의 위치 관계에 따라 다  
시 셋으로 나뉜다.

이 문형은 'z 중에서는 x가 가장 V1하다'로 해석된다.

8) 가장 전형적인 무쌍비교의 정도부사는 '最'이며 그 밖에도 대체로 '尤, 絕, 頂,  
尤其, 至, 極, 甚'등을 든다.

「畜孰最難者?」…「犬馬難。」「孰易者?」曰:「鬼魅最易。」(韓非子 外儲說左上)

諸子中勝最賢。(史記 平原君列傳)

C42 <x-z-最-V1>

이 문형은 'x는 z 중에서 가장 V1하다'로 해석된다.

慶於諸子中最高簡易矣。(史記 萬石君列傳)

由居二千石中,最高暴酷驕者。(史記 酷吏列傳)

C43 <x-最-V1>

畜…「孰易者?」曰:「鬼魅最易。」(韓非子 外儲說左上)

C44 <z-孰-V1>

이 문형은 'z 중에서는 무엇이 V1한가?'로 해석되는 <모집단-우등 비교>의 방식이다.

事孰爲大? (孟子 離婁上) 섬기는 일 가운데서는 무엇이 가장 큰가?

5. 비교문형 종합표

(A) 동등비교

A1 <x-V1-V2-y> A11 <x-V1-「於」-y>

A12 <x-「比」-「於」-y>

A13 <x-V1-「如」-y>



- A2 <x-V2-y-V1> A21 <x-「與」-y-V1>  
 A22 <x-「不」-「與」-y-V1>  
 A23 <x-「與」-y-何-V1>  
 A24 <x-「如」-y-「然」>  
 A3 <x-V1-y> A31 <x-V1-y>  
 A32 <x-「比」-y>  
 A33 <x-「如」-y>

(B) 우열비교

- B1 <x-V1-V2-y> B11 <x-V1-「於」-y>  
 B12 <x-도량-V1-於-y>  
 B13 <x-有-V1-於-y>  
 B14 <無-「不如」-焉>  
 B2 <x-V2-y-V1> B21 <x-「不如」-y 之-V1>  
 B22 <x-「與」-y-「孰」-V1>  
 B23 <x-「孰與」-y-V1>  
 B24 <T-x-孰與-y>  
 B25 <T-孰與-y>  
 B26 <x-「孰與」-y>  
 B3 <x-V1-y> B31 <x-V1-y>  
 B32 <x-V1-y-도량>  
 B33 <x-도량-V1-y>  
 B34 <x-「不如」-y>  
 B35 <與其,與-x-「不如」-y>  
 B36 <x-有-V1-y>  
 B4 <x-V1> B41 <x-「益」-V1>

(C) 無雙비교

- |                |                      |
|----------------|----------------------|
| C1 <x-V1-V2-y> | C11 <z-「莫」-V1-「於」-y> |
|                | C12 <z-孰-V1-於-y>     |
|                | C13 <孰-x-V1-焉>       |
|                | C14 <無-x-V1-焉>       |
| C2 <V2-y-V1>   | C21 <z-「莫如」-y-V1>    |
| C3 <x-V1-y>    | C31 <何-x-如-y>        |
|                | C32 <z-「莫如」-y>       |
|                | C33 <T-「莫如」-y>       |
| C4 <x-V1>      | C41 <z-x-最-V1>       |
|                | C42 <x-z-最-V1>       |
|                | C43 <x-最-V1>         |
|                | C44 <z-孰-V1>         |

<참고문헌>

- 董治國 <古代漢語句型大全> 天津古籍出版社, 1988.
- 馬建忠1898<馬氏文通>,[馬氏文通讀本,呂叔湘 王海藻編,上海教育出版社,1986]
- 太田辰夫 Ota,Tatsuo 1981 <中國語歷史文法>, 京都 朋友書店 昭和56년 초판, 동 60년 재판. 中譯本: 中國語歷史文法
- 何樂士 1989 <左傳虛詞研究>,北京 常務印書館.
- 楊伯峻 何樂士 1992 <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1029쪽.
- 呂叔湘 1942 <中國文法要略>,漢語語法叢書,북경 常務印書館,1982.
- 趙元任 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70년 재판. 325-350
- 리-통슨 Li, Charles N. and Thompson, Sandra A. 198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번역: <표준중국어문법> 박정구 박종한 백은희 오문의 최영하 옮김. 한울아카데미, 1989.
- 牛島德次 1966a <漢語文法論 古代編> 東京: 大修館書店 1966, 410p.
- 詹伯慧 1981 <現代漢語方言> 湖北人民出版社, 1985년판.